

唐宋시기 중국어 ‘들다’류 어휘 고찰 및 역사적 변천에 따른 의미장 연구

황신애*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唐宋시기 ‘들다’류 어휘의 의미 분석 및 역사적 변천에 따른 특징 고찰
 - III. 先秦에서 唐宋시기까지 중국어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한어사 어휘연구는 先秦시기부터 明清시기까지 각 시기에 해당하는 개별어휘의 의미 분석 및 특징 고찰을 통해 각 시기별 언어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한어사 어휘연구가 전면적이고 체계적 계통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기별 어휘 고찰 외에도 어휘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통시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21C 초를 전후하여 한어사 어휘의 변천과정을 다룬 저서나 논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미 타 논문¹⁾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본문에서는 한어사 어휘연구 기본 작업의 일환으로 唐宋시기 중국어 ‘들다’ 행위와 관련된 어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唐五代시기는 한어사 연구에 있어서 근대 한어가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 본문에서는 唐宋시기의 ‘들다’류 어휘의 사용상황과 先秦부터 唐宋시기까지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에

*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1) 《여씨춘추》, 《사기》, 《세설신어》를 통해 본 중국어 ‘주다’ 어휘 의미연구, 중국학연구회. 2009.09.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²⁾ 본문에서는 唐宋시기 ‘들다’류 어휘가 지니는 특징 외에 先秦兩漢시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擧’, ‘持’, ‘執’ 등의 ‘들다’류 어휘가 중고시기를 거쳐 唐宋시기에 이르러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문헌고찰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들다’류 어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들다’ 어휘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사물을 지면에서 수직적으로 들어 올리는 행위와 자신의 신체부위 중 한 부분을 드는 구체적인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예를 들다’와 같은 추상적인 어휘는 배제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문에 사용된 唐五代시기의 문헌자료로는 《祖堂集》, 《六祖壇經》, 《敦煌變文校注》, “唐詩三百首”, “王梵志詩”를 사용하였으며, 宋代 문헌자료로는 《近思錄》, 《朱子語類》(1권~13권), 《三朝北盟會編》(1권~20권)을 사용하였다. 《朱子語類》와 《三朝北盟會編》(이하 《三朝》라 칭함)의 경우 방대한 자료로 인해 일부분 발췌하여 사용하였고, 발췌자료에 ‘들다’류 어휘가 출현하지 않을 경우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헌 전체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예문과 각 시기별 어휘 고찰은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의 고대 중국어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I. 唐宋시기 ‘들다’류 어휘의 의미 분석 및 역사적 변천에 따른 특징 고찰

아래 본문에서는 唐宋시기에 사용된 ‘들다’류 어휘 중, 앞 시기들과 비교하여 의미와 의미역(義域)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와 이시기에 새로 출현한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사용한 唐宋시기 ‘들다’류 어휘는 ‘擎’, ‘擧’, ‘提’, ‘挈’, ‘執’, ‘持’, ‘揭’, ‘擡’인데, 본문에서는 이들이 唐宋시기에 사용된 특징 및 역사적 변천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³⁾ 이들은 ‘들다’ 의미장안에서 각각 일정한 영역

2) 필자는 先秦시기부터 魏晉南北朝시기까지 중국어 ‘들다’류 어휘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부분적 고찰을 한 적이 있다(참조: 《〈전국책〉 中の ‘들다’ 어휘 풀이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 中國文學研究, 2011.2.).

3) ‘擡’은 唐宋시기 ‘들다’ 의미로 사용된 어휘이나 의미와 의미역(義域)에 있어서 앞 시기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을 차지하며,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들다’ 의미장안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1. ‘擎’

1) 唐宋시기 ‘擎’의 의미 분석

‘들다’ 의미로 사용된 ‘擎’의 용례는 《世說新語》에 처음 보인다⁴⁾. 唐宋시기에 이르러 ‘擎’은 ‘들다’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唐宋시기 문헌에 출현빈도를 보면, 《敦煌變文校注》 58회, “王梵志詩” 6회, 《祖堂集》 4회, 《朱子語類》 3회, 《三朝》에 2회 출현한다.

[예1] 師曰：“汝與我擎鉢盂來。”(祖堂集) (선사께서 말했다. “그대는 나에게 바리때를 갖다 나오.”)

[예2] 十月間(艱)辛, 起坐不安, 如擎重擔.(敦煌變文校注) (10개월간 고생하며 거동이 불편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예3] 手中皆擎水精之盤.(敦煌變文校注) (손에 모두 수정쟁반을 들고 있다.)

[예4] 手擎金玉行.(王梵志詩) (손에 보석을 들고 다닌다.)

위 예문을 통해, 唐宋시기에 ‘擎’은 그릇류, 짐, 보석 등을 들 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擎’은 특히 《敦煌變文校注》에 58회 출현하며, 그 용례가 많이 보이는데 결합되는 사물을 보면, 채찍(擎鞭), 병(擎金瓶), 창(擎槍), 꽃(擎鮮花), 악기(擎樂器), 금(擎金), 옥(擎玉) 등이다. 이 시기에 ‘擎’은 주로 보석류, 그릇류 및 다양한 사물 등과 결합하며 ‘들다’ 의미로 폭넓게 사용된 어휘로 볼 수 있다.

‘擎’은 唐宋시기에 간혹 신체부위를 들 때도 사용되는데, 《祖堂集》과 “王梵志詩”에 용례가 각 1회씩 보인다.

[예5] “不擎拳向閻梨.”(祖堂集) (“그대에게 주먹을 들어 향하지 않느니라.”)

[예6] 擎頭鄉裏行.(王梵志詩) (고개를 들고 마을로 가네.)

4) ‘擎’의 역사적 변천 참조.

[예5]를 보면 ‘擎’이 주먹을 드는 행위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예6]의 ‘擎頭’는 고개를 드는 행위로 이는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2) ‘擎’ 의미의 역사적 변천

‘擎’은 《莊子》에 “擎踞曲拳，人臣之禮也。人皆爲之，吾敢不爲邪!”라 하고, 成玄英疏: “擎手踞足，擎折曲躬，俯仰拜伏者，人臣之禮也.”라 하여 손을 모으고 발을 구부려 예를 갖추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일설에는 “執笏跪拜並鞠躬.”이라 하고, 《陳鼓應今注》에는 “‘擎，執笏；‘踞’，跪拜。‘曲拳，鞠躬.’”라 하여 ‘擎’은 손을 붙잡아 예를 행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擎’은 先秦시기에 손을 모으거나, 손을 붙잡아 예를 행하는 어휘로 볼 수 있다. ‘들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擎’은 《世說新語》에 처음 출현한다.

[예6] “婢擎金澡盆盛水，琉璃碗盛澡豆。”(世說新語) (시녀가 황금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들고 있었고, 유리 주발에는 조두를 담아 놓았다.)

[예7] 皆綾羅綺(ㄴㄹ)，以手擎飲食。(世說新語) (모두 화려한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두 손으로 음식을 받쳐(들고) 내었다.)

唐宋시기에 이르러 ‘擎’은 그 사용범주가 확대될 뿐 아니라, 여러 문헌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8] 東邊有一菩薩，手擎鉢，滿盛飯而立。(入唐求法巡禮行記) (동쪽에 한 보살이 손에 바리때를 들고 밥을 가득 담아 서있었다.)

[예9] “汝擎茶，吾爲汝吃；汝持食，吾爲汝受。”(祖堂集) (“네가 차를 가져오면 나는 차를 마시고, 네가 밥을 가져오면 나는 밥을 먹었다.”)

[예10] 使我擎凳子來。(五燈會元) (나보고 의자를 들고 오라고 했다.)

[예8]~[예10]을 통해, ‘擎’은 唐代시기(《入唐求法巡禮行記》)부터 五代시기(《祖堂集》)를 거쳐 南宋시기(《五燈會元》)에 이르기까지 ‘들다’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擎'은 先秦兩漢시기에 손을 모으거나 받들어 '예를 행하는 의미'로 사용되다 魏晉南北朝시기에 이르러 '들다'라는 새로운 의미항이 생겨나게 된다. 唐宋시기에 이르러 '擎'은 여러 문헌에 출현하며, '들다' 의미로 사용된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2. 擧

1) 唐宋시기 '擧'의 의미 분석

'擧'는 唐宋시기에 일반 사물을 드는 행위로 사용될 경우 先秦兩漢시기에 비해 그와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상당히 줄어든다. 예로 《祖堂集》에 '擧'는 137회 출현하는데, 이중 일반적 사물을 드는 행위는 단 5회 사용된다. 이는 先秦兩漢시기에 보편적인 '들다' 의미로 많이 사용되던 '擧'가 魏晉南北朝시대를 거쳐 唐五代에 이르러 '들다' 의미에서 그 사용빈도가 현격히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擧'는 《祖堂集》 9회, 《六祖壇經》 1회, 《敦煌變文校注》 53회(43회는 신체부위를 들 때 사용됨), "唐詩三百首" 4회, 《朱子語類》 3회, 《三朝》 2회 출현한다.

- [예11] 師提起杖。“如何是非敗壞底？”師亦舉起杖。(祖堂集) (선사께서 주장자를 들어올렸다. 어떤 것이 헤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선사께서 역시 주장자를 들어올렸다.)
- [예12] 擧三科法門，動用三十六對，出沒即離兩邊。(六朝壇經) (3과 법문을 들고, 동용 삼십육대를 들어 보여서, (일체) 출몰에서 곧 (2분법) 양변을 떠나도록 할지니라.)
- [예13] 五百人一時擧劍。(敦煌變文校注) (오백 인이 일시에 검을 들었다.)
- [예14] 主人下馬客在船，擧酒欲飲無管弦(白居易：琵琶行并序) (주인과 손님이 말에서 내려 배 안으로 들어가 술잔 들어 마시려는데 풍악이 없어 허전했네.)
- [예15] 師還，又大會，問有功高下，賞之以金帛若干，擧以衆示，或以爲薄，復增之。(三朝) (군대가 귀환하면 다시 대회를 열어 전공의 높낮이에 따라 상을 주는데, 약간 액의 금백(金帛)을 대중에게 들어 보여주었다. 어떤 이가 적다고 여긴다면 더 보태주었다.)
- [예16] 因擧手中扇云：“只如搖扇”。(朱子語類) (손에 있는 부채를 들어서 말씀

하였다. “단지 부채를 부치는 것과 같다.”)

[예11]을 보면 ‘擧’와 ‘提’가 동일구문에서 동일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예13]~[예14]를 보면 ‘擧’가 ‘술’과 ‘검’ 등을 들 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술’과 ‘검’(무기류) 등은 先秦시기에 ‘擧’와 결합하여 사용된 이후 唐宋시기에 이르기까지 ‘擧’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된다. 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단어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어휘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로 현대한어에서 ‘술’ 특히 ‘술잔’을 들 때 ‘擧杯’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唐宋시기 ‘擧’는 그와 결합하는 일반 사물에 있어서 특정어휘가 많이 보이는데, 주로 술 또는 흉기(무기)와 관련된 어휘들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唐宋시기에 ‘擧’는 ‘들다’ 의미장에서 신체부위를 들 때 주로 사용된다. 예로 《敦煌變文校注》에 ‘擧’는 ‘들다’ 의미로 53회 출현하나 그중 43회는 신체부위를 들 때 사용된다. 이때 결합하는 신체부위는 주로 ‘손’, ‘머리’, ‘발’, ‘눈’ 등이 사용된다.⁵⁾ 예문은 아래와 같다.

[예17] 招慶擧首顧視師云.(祖堂集) (초경이 고개를 들어 앞뒤를 돌아보거늘 선사께서 말했다.)

[예18] 保福忽然入殿, 見佛乃擧手, 師便問.(祖堂集) (보복이 갑자기 불전에 들어왔다가 부처님을 보자 손을 번쩍 드니 선사께서 얼른 물었다.)

[예19] 擧頭忽見一人.(敦煌變文校注) (고개를 들고 갑자기 사람을 보다.)

[예20] 楊堅擧目忽見皇后.(敦煌變文校注) (楊堅이 눈을 들어 갑자기 황후를 보았다.)

[예21] 擧足動步, 常要此心在這裏.(朱子語類) (걸어 다닐 때도 늘 이 마음이 거기 있도록 한다.)

2) ‘擧’ 의미의 역사적 변천

‘擧’는 先秦兩漢시기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들다’의미로 사용된 어휘이다.⁶⁾

5) 이외 北京大學 CCL 語料庫에 보면 ‘몸(신체)’도 ‘擧’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예22] 弈者舉棋不定, 不勝其耦.(左傳) (바둑을 두는 자가 바둑알을 들고 (확실히) 정하지 못하면 상대를 이기지 못한다.)

[예23] 舉築樸秦皇帝, 不中.(史記) (축을 들어 진시황을 쳤으나 맞지 않았다.)

[예22]와 [예23]을 보면 '舉'는 바둑알과 악기를 목적어로 갖는다. 이외에도 先秦과 漢代에 '舉'는 술잔, 화살, 촛불, 깃털, 그물, 햇불, 노 등 다양한 사물을 목적어로 갖는다.⁷⁾ '舉'는 전국시기에 이르러 자주 신체부위와 결합되어 사용되곤 하는데, 이런 현상은 위진남북조시기에 이르러 '들다' 의미장안에서 한차례 의미역(義域)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의미역(義域)이란 한 어휘가 의미장안에서 차지하는 공간 및 영역을 의미하는데, 선진시기에 '들다' 의미장안에서 일반 사물과 폭넓게 결합하던 '舉'가 전국시기를 거쳐 한대, 위진남북조시기로 오면서 신체부위와 자주 결합하고 일반사물과 결합할 때는 비교적 제한된 사물(예를 들면, 술, 검 등)과 결합하면서 '들다' 의미장안에서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자신의 의미역(義域)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舉'는 당송시기에 이르러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데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선진양한시기에 비해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빈도도 낮아지고⁸⁾, 결합되는 어휘도 비교적 국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송시기에도 위진남북조시기와 마찬가지로 신체부위를 들 때 자주 사용되며 이들 어휘 중 일부(예: 舉手)는 점차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어져 어휘화 된다.

'舉'는 先秦양한시기에 '들다' 의미장안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어휘였으나, 魏晉南北朝시기를 거쳐 唐宋시기로 오면서 결합하는 사물이 점점 줄어들어 의미역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또 '舉'는 전국시기에 신체부위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되고 魏晉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에 이르러서도 신체부위와 결합하여 활발히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일부 어휘는 고정형태로(예: 舉手) '어휘의 전문화'를 형성하며 현재까지도 사용된다.

6) 《전국책》 中の '들다' 어휘 풀이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 中國文學研究, 2011.2.

7) 上同.

8) 唐宋시기 '舉'의 의미 분석 참조.

3. 提

1) 唐宋시기 ‘提’의 의미 분석

‘提’는 唐宋시기에 ‘들다’ 어휘로 사용된다. 《祖堂集》 13회, 《敦煌變文校注》 7회, 《朱子語類》에 3회 출현한다.

- [예24] 其僧提起茶碗曰。(祖堂集) (이에 그 중이 찻종지를 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예25] 有一日, 其道者提籃子摘梨。(어느날 그 도자(道者)가 광주리를 들고 배를 따서 담았다.)
 [예26] 對曰: “盡大地人提不起。”(祖堂集) (온누리의 사람이 다 덤벼도 들지 못합니다.)
 [예27] 手提三尺之劍。(敦煌變文校注) (손에 삼척의 검을 들다.)
 [예28] 只是手提竹籠。(敦煌變文校注) (다만 손에 대바구니를 들고 있다.)
 [예29] 如這手是體; 指之運動提掇處便是用。(朱子語類) (예를 들어, 이 손은 본체이고, 손가락을 움직여 (어떤 것을) 들거나 쥐는 것은 바로 작용이다.)
 [예30] 因提案上藥囊起。(朱子語類) (이어서 책상 위에 있는 약 행낭을 들어올렸다.)

예문을 통해 唐宋시기의 ‘提’는 다양한 사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찻종지부터 바구니, 검, 광주리, 약 행낭 등 비교적 다양한 사물을 손으로 들어 올릴 때 사용된다.

唐宋시기 ‘提’가 신체부위를 들 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예31] 彦上座戴笠子堂堂來, 直到師面前, 以手拍笠子, 提起手, 云: “還相記在摩?”(祖堂集·岩頭和尚) (인상좌가 샷갓을 쓴채 당당하게 와서 곧장 선사의 앞에 이르러 손으로 샷갓을 두드리고는 손을 들면서 말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唐宋시기에 ‘提’가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갖는 경우는 ‘擧’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적이다. [예3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提’는 신체부위 중 손을 드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다른 신체부위를 들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 신체부위 손을 목적어로 갖는 ‘提’는

《祖堂集》에 그 예가 처음 보인다. 이 경우 '提'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起'와 결합하여 이음절 단어를 이룬다.

2) '提' 의미의 역사적 변천

先秦兩漢시기에 '提'는 비교적 가벼운 물건들을 들 때 주로 사용된다.

[예32] 列子提履, 跣而走.(莊子) (열자가 신발을 들고 맨발로 달아났다.)

[예33] 平公提觴而起爲師曠壽, 反坐而問.(韓非子) (평공은 술잔을 들고 일어나 사공을 위해 축수(건배)하고는 돌아와 앉으며 물었다.)

[예34] 且提一匕首入不測之彊秦.(史記) (비수를 들고 예측할 수 없는 강국 진나라로 갔다.)

[예32]~[예34]를 보면, 先秦兩漢시기의 '提'는 드는 대상에 있어 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물건들로 주로 술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 및 무기류(칼, 검 등)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魏晉南北朝시기에 이르러 '提'는 先秦兩漢시기와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으나, 문헌을 통해 결합 대상이 좀 더 다양해지고 확대되어지는데⁹⁾, 이는 '들다' 의미장 안에서 '提'의 의미역(義域)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唐宋시기에 이르러 '提'는 이전시기에 비해 그 의미역이 상당부분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결합물체에 있어서도 찻종지부터 바구니, 검, 광주리, 약 행낭 등 비교적 다양한 사물을 수반한다.

'提'는 先秦兩漢시기부터 魏晉南北朝시기를 거쳐 唐宋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역이 점차 확대되고 넓어진 어휘로 '들다' 의미장안에서 '일반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挈

1) 唐宋시기 '挈'의 의미 분석

'挈'는 唐宋시기 상당수 문헌에 출현하지 않는다. 《朱子語類》 등에 용례가 보이

9) 《전국책》中的 '들다' 어휘 풀이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 中國文學研究, 2011.2.

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앞 시기들과 마찬가지로 ‘提’와 종종 같이 사용된다.

[예35] 或移上在下, 或挈下在上.(朱子語類) (위 것을 이동하여 아래에 놓거나 아래 것을 들어 위에 놓았다.)

[예36] 有一人挈小囊.(太平廣記) (어떤 사람이 작은 주머니를 들었다.)

[예35]와 [예36]을 보면 ‘挈’가 ‘들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唐宋시기 ‘挈’는 ‘들다’의 의미보다 ‘이끌다’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三朝》의 경우만 보더라도 ‘挈’가 ‘이끌다, 데리고 가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盜入境左提妻右挈子群趨疾走以避.”(몰래 국경에 들어가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재빨리 달아나 숨는다.) 또 ‘挈’는 ‘이끌다, 데리고 가다’의 의미에서도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자주 ‘提’와 같이 사용된다. [예]須是聖人出來, 左提右挈, 原始要終.(朱子語類) (반드시 성인이 나와서 좌우에서 이끌어 주고 근원을 찾아 끝을 맺어주어야 한다.)

2) ‘挈’ 의미의 역사적 변천

‘挈’는 《說文》에 ‘縣持也.’라 하고, 《段注》에 ‘縣者,系也.(挈)謂縣而持之也.(縣은 ‘매다’의 의미이다. (‘挈’는) ‘묶어 매어 들다’를 일컫는다.)’라 하였다.

[예37] 雖有挈餅之知, 守不假器.(左傳) (두레박을 들어 쓸 줄 아는 지혜만 있어도 지키고 기물을 빌려주지 않는다.)

[예38] 若挈裘領, 屈五指而頓之, 順者不可勝數也.(荀子) (가죽옷의 깃을 들고 다섯손가락을 구부려 그것을 쓸어내리면 (모든 털들이) 따르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39] 夫一石之重, 一人挈之, 十石以上, 二人不能舉也.(論衡) (무릇 1석(120근)의 무게는 한 사람이 들 수 있으나 10석 이상은 두 사람도 들 수 없다.)

先秦시기에 ‘挈’는 ‘들다’의 의미를 지닌다. [예37]~[예38]을 통해, ‘두레박’, ‘가죽 옷의 깃’ 등 주로 가벼운 물건을 들 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東漢시기에도 ‘挈’는 ‘들다’의 의미로 사용되나([예39]),先秦시기에 비해 사용빈도가 많이 줄어든

다. [예39]를 보면 10석을 들 때 ‘擧’를 사용한 것에 반해 1석을 들 때 ‘挈’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건을 들 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르면, ‘挈’는 문헌에 출현하는 빈도가 급속히 감소한다. 《삼국지》에 ‘挈壺餐’ 구문이 보이긴 하나, 주로 ‘左提右挈’의 형태로 고정형식에 출현하고 단독 행위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¹⁰⁾

唐宋시기에 이르러 ‘挈’는 사용빈도도 많이 감소할 뿐 아니라, 용례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 《祖堂集》, 《六祖壇經》, 《敦煌變文校注》¹¹⁾, “唐詩三百首”, “王梵志詩”, 《近思錄》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으며, 《朱子語類》에 2회 용례가 보일 뿐이다.¹²⁾ 《三朝》에는 23회 출현하나 앞선 말한 대로 주로 ‘이끌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挈’는 先秦시기에 ‘들다’ 의미로 사용되다, 漢代와 魏晉南北朝시기 및 唐宋시기를 거치면서 ‘들다’ 의미장 안에서 그 의미역(義域)이 상당히 축소되고, 사용빈도 또한 급격히 줄어들어 ‘들다’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어휘라 하겠다.

5. 執

1) 唐宋시기 ‘執’의 의미 분석

‘執’는 唐宋시기 문헌 중 《祖堂集》, 《敦煌變文校注》, 《朱子語類》, 《三朝》에서 ‘들다’ 의미로 사용되는 예문을 발견할 수 있다.

[예40] 著鞋履, 執座具, 上法堂禮拜, 一切了侍立.(祖堂集) (신을 신은 채 방석을 들고 법당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문안한 뒤에 모시고 섰다.)

[예41] 各執刀棒, 驅至帳前.(敦煌變文校注) (각각 칼과 방망이를 들고 말을 몰아 장막 앞에 이르렀다.)

[예42] 執炬火以焚毛, 如何不盡!(敦煌變文校注) (횃불을 들고서 태우니 어찌 다 타지 않겠는가!)

10) 《〈전국책〉 中の ‘들다’ 어휘 풀이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 中國文學研究, 2011.2.

11) 《敦煌變文校注》에는 4회 출현하나, ‘들다’ 의미로 사용되지 않음.

12) ‘挈’는 필자가 조사한 문헌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으나, 北京大學 CCL 자료에는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용례가 다소 보임(〈표2〉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들다’류 어휘의 사용상황 및 결합어휘 역사적 변천 표 참조.).

- [예43] 便如執權衡以度物.(朱子語類) (저울을 들고(취고) 사물을 재는 것과 같다.)
- [예44] 古之人執幹戈衛社稷, 躬耕稼, 與陶、漁之事, 皆是也.(朱子語類) (옛 사람들이 무기를 들어 나라를 지키고, 몸소 밭을 갈고, 그릇 만들고 고기 잡은 것이 모두 이랬다.)
- [예45] 隊伍之法, 伍什伯皆有長: 伍長擊柝, 什長執旗, 伯長挾鼓, 千長則旗幟金鼓悉備.(三朝) (대오(隊伍) 방법은, 다섯 명(伍), 열 명(什), 백 명(伯) 마다 대장이 있는데, 오장(伍長)은 딱따기를 치고 십장(什長)은 깃대를 들고 백장(伯長)은 북을 매고 천장(千長: 천명의 대장)은 기치와 징·북을 모두 갖추었다.)
- [예46] 令部曲執漢旗幟, 分漢兵以弓弩翼之.(三朝) (휘하 각 부에 명령하여 모두 한인의 깃발을 들게 하고, 한인 병사는 나누어 궁노를 들고 그들을 돕도록 하라.)
- [예47] 以女眞兵數十人佩刀執弓矢, 守護甚嚴.(三朝) (여진병사 수십 인이 칼을 차고 활과 화살을 들고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

‘執’는 唐宋시기에 ‘들다’ 의미 외에 ‘잡다’ 또는 ‘붙잡다’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近思錄》에 “今之朋友, 擇其善柔, 以相與, 拍肩執袂, 以爲氣合, 一言不合, 怒氣相加.(오늘날의 친구들이란 서로가 선유한 것을 가려 사귀고, 어깨를 두드리고 팔소매를 잡고 의기를 합한 것같이 여기나 한마디도 기에 어울리지 아니하고 노기를 띤 말을 서로 더할 뿐이다.)라 하여 ‘執’가 ‘잡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들다’와 ‘잡다’의 의미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동작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잡다’는 동작이 평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들다’는 동작이 수직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작이 평행적 행동성을 지니면 ‘잡다’ 의미로, 동작이 상향적 행동성을 지니면 ‘들다’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문장에서 ‘들다’ 의미로 사용된 경우 현대 한어의 ‘拿’ 또는 ‘提’로 대체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가능하다면 ‘들다’의 의미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예40]~[예47] 예문을 보면, ‘執’는 ‘방석’, ‘칼’, ‘횃불’, ‘저울’, ‘전쟁과 관련된 물체(무기, 깃발, 활, 화살)’들을 잡을 때 모두 수직선상에서 상향성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들은 모두 ‘들다’ 의미향으로 보아야 한다. 단, 《近思錄》에 ‘팔소매를 잡고(執袂)’

에서의 ‘執’는 상향성 행동보다는 평행적 행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붙)잡다’ 의미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執’ 의미의 역사적 변천

‘執’는 《說文》에 ‘捕罪人也.’¹³⁾라 하여 ‘죄인을 체포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執’는 파생되어 ‘잡다, 붙잡다’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는 다시 ‘들다’ 의미로 파생되어 사용된다. 이는 ‘잡다’의 평행적 행동에서 ‘들다’의 상향성 행동으로 변환된 것을 말하는데, 先秦시기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예48] 君子陽陽，左執簧，右招我由房，其樂只且。(詩經·王風·君子陽陽)
(즐거운 우리 님은 왼손에 생황 들고 오른손으로 나를 방으로 부르니 정말 즐겁네.)

[예49] 邾子執玉高，其容仰，公受玉卑，其容俯。(左傳) (주나라 군주가 옥을 너무 높이 들어 그의 몸이 올라가고, 정공이 옥을 받는 자세가 너무 낮아, 몸이 아래로 구부러졌다.)

[예50] 然且七十說而不受，身執鼎俎爲庖宰，昵近皆親，而湯乃僅知其賢而用之。(韓非子) (일흔 번이나 유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몸소 솥과 도마를 들고 가 요리사가 되어 친해지고 나서야, 탕왕은 비로소 그의 현명함을 알고 그를 등용했다.)

[예48]~[예50]을 보면, ‘執’는 先秦시기에 ‘들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어휘임을 알 수 있다. 先秦시기에 ‘執’는 결합하는 사물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한 사물을 수반하는데, 위의 예문 외에도 ‘창’, ‘굉주리’, ‘칼’, ‘활’, ‘술통’, ‘방패’ 등 다양한 사물을 목적어로 지니어 ‘들다’ 의미장 안에서 차지하는 의미역이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¹⁴⁾ 漢代로 오면서 ‘執’는 先秦시기에 비해 사용빈도가 감소한다. 《전국책》과 《사기열전》의 경우 ‘들다’의 의미는 각각 3회와 2회 출현하는데, 이는 다른 어휘 ‘擧’ 등¹⁵⁾과 비교해 볼 때 출현빈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¹⁶⁾ 다음은 漢

13) 《說文解字今釋》，湯可敬 撰，岳麓書社，1421쪽

14) 《《전국책》中的 ‘들다’ 어휘 풀이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中國文學研究，2011.2.

15) ‘擧’는 《전국책》과 《사기열전》에 각각 11회씩 출현한다.

代에 ‘執’가 ‘들다’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예51] 傳語曰：“周公執贄下白屋之士。”謂候之也。(論衡) (전하는 말에 “주공은 폐백을 들고 가서 누추한 집에 사는 선비에게 (자신을) 낮추었다”고 한다.)

魏晉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에 ‘執’는 여전히 ‘들다’ 의미로 사용된다.

[예52] 吾懼董狐將執簡而進矣(世說新語) (나는 동호가 죽간을 들고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오.)

[예53] 則嘗夜夢執丹漆之禮器，隨仲尼而南行。(文心調龍) (밤 꿈에 검붉은 칠을 한 제사그릇을 들고 공자님을 따라 남쪽으로 가기도 했다.)

[예54] 手執金牌。(敦煌變文校注) (손에 금 방패를 들었다.)

[예55] 三十武士，各執刀棒。(敦煌變文校注) (삼십 인의 무사가 각각 칼과 방망이를 들다.)

[예56] 古之人執干戈衛社稷。(朱子語類) (옛 사람들은 무기를 들어 나라를 지켰다.)

위 예문을 통해 ‘執’가 魏晉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에 ‘들다’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대로 올수록 ‘執’는 ‘들다’ 의미장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상당부분 다른 어휘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다른 의미장(예: ‘잡다’ 의미장 등) 안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魏晉南北朝시기 《세설신어》¹⁷⁾를 보면, “攀枝執條，泫然流淚。(줄기와 가지를 어루만지며(잡으며) 눈물을 주루룩 흘렸다.)”라 하여 ‘잡다’ 의미장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唐宋시기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들다’ 의미로 《敦煌變文校注》에 20회 출현한 것을 제외하면¹⁸⁾, 《祖堂集》 1회, 《朱子語類》 3회, 《三朝》 5회로 출현빈도 수가 낮은 뿐 아니라, 《近思錄》에는 출현하지 않으며, 《六組檀經》, “唐詩三百首,

16) 《전국책》 중의 ‘들다’ 어휘 풀이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

17) 《세설신어》에 ‘執’는 17회 출현하는데, 그중 ‘들다’ 의미로는 3회 사용되었다.

18) 《敦煌變文校注》에서 ‘執’는 주로 다른 ‘들다’ 어휘와 같이 사용되며, 구문이 반복하여 출현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사물결합에 있어 폭넓게 결합하지 않으나 반복구문으로 인한 빈도 수가 높아 보인다(예: 擎鞭執帽 등).

“王梵志詩”에는 출현은 하나 ‘들다’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先秦시기에 ‘들다’ 의미장 안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었던 ‘執’는 漢代와 魏晉南北朝 및 唐宋시기를 거치면서 ‘들다’ 의미장 안에서 점점 자신의 역할을 다른 ‘들다’ 어휘에 양도하고, 자신은 다른 의미장(예: ‘잡다’, ‘집착하다/고집하다’ 등)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혀간다고 할 수 있다.

6. 持

1) 唐宋시기 ‘持’의 의미 분석

‘持’는 唐宋시기에 ‘들다’의 의미로 사용된 어휘이다. 唐宋시기 문헌 중 《祖堂集》, 《敦煌變文校注》, “唐詩三百首” 《三朝》에서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

- [예57] 迤邐往到始興縣曹溪山, 恰遇大師上堂, 持錫而上, 繞禪床三匝而立.
(祖堂集·一宿覺和尚) (그럭저럭 시흥현 조계산에 이르니, 때마침 대사가 계시어 상당하여 계셨다. 석장을 들고 올라가 선상을 세 겹 돌고는 우뚝 섰다.)
- [예58] 有僧持鉢家常, 俗人問.(祖堂集·洞山和尚) (어떤 중이 바리때를 들고 항상 가는 속인의 집에 갔더니 속인이 물었다.)
- [예59] 欲持一瓢酒, 遠慰風雨夕.(韋應物: 寄全椒山中道士) (한 바가지 술을 들고 찾아가 비바람 부는 저녁을 위로하고 싶네.)
- [예60] 閑持貝葉書, 步出東齋讀.(柳宗元: 晨詣超師院讀禪經) (한가로이 다라수(多羅樹) 앞에 쓰인 경전을 들고 걸어 나와 동쪽서재에서 읽어 보았네.)
- [예61] 手持綠玉杖, 朝別黃鶴樓.(李白: 廬山謠寄盧侍禦虛舟) (초록색 옥지팡이 한 손에 들고 아침에 황학루를 하직하고 떠나왔네.)
- [예62] 俄及炎蒸, 飛芻輓粟以猶繁, 擐甲持戈而未已.(三朝) (잠시 후면 무더위가 닥칠 터이니 건초와 곡식을 운반하는 일은 더욱 번거로워지겠지만 갑옷을 두르고 창을 드는 일(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 [예63] 辭難久之, 衆持榜去.(三朝) (서로 한참 실갱이 한 끝에, 사람들이 방을 들고 갔다.)

‘持’는 唐宋시기에 ‘가지다, 지나다’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들다’의 의미와 모호한 경계선을 이룬다. 《祖堂集》에 보면 “百丈曰：“我有書兼有信物，欲得送藥山尊者，你持書速去.”(내가 약산께 보낼 편지와 선물이 있으니 그대는 편지를 가지고 빨리 떠나라) 또 《六組壇經》에 보면, “但持《金剛經》一卷，即得見性，直了成佛.”(다만 금강경 한 권만 지니고 공부하면 곧 자성을 깨달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라 하여 ‘持’가 ‘가지다, 지나다’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두 예문에 사용된 ‘持’는 그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祖堂集》에 사용된 ‘持’는 해석에 있어 ‘가지다, 지나다’의 의미로 해석되나, 이 역시 수직선상에서의 상향성 행동이 포함되고 현대한어의 ‘拿’로도 대체가능하기에 ‘들다’의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六組壇經》의 ‘持’는 ‘드는 행위’가 아닌 소유개념의 ‘지나다, 가지다’의 의미로 ‘들다’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唐宋시기 ‘持’의 예문들([예57]~[예63])은 모두 ‘들다’의 의미를 갖는 어휘들로 볼 수 있다.

2) ‘持’ 의미의 역사적 변천

‘持’는 《說文》에 “握也.”¹⁹⁾라 하여 본의는 ‘잡다’의 의미를 지닌다. 후에 파생되어 ‘들다’ 의미를 지닌다. 아래는 각 시기에 ‘들다’ 의미로 사용된 예문들이다.

- [예64] 蒯瞶不敢自佚，備持矛焉。(左傳) (저도 감히 스스로 안일하게 있을 수 없어 창을 잡고 우익이 되었습니다.)
- [예65] 乃左手持卮，右手畫蛇。(戰國策) (이에 왼손으로 술잔을 들고 오른손으로 뱀을 그렸다.)
- [예66] 使三軍持木杖，匹夫持一刃。(論衡) (삼군은 나무지팡이를 들게 하고, 필부에게는 칼날을 들게 하다.)
- [예67] 一手持蟹螯，一手持酒柸。(世說新語) (한 손엔 게를 들고 한 손엔 술잔을 들다.)
- [예68] 持斧詣園，飽共噉畢，伐之。(世說新語) (도끼를 들고 정원에 가서 실컷 배불리 먹은 후 나무들을 베어버렸다.)
- [예69] 來晨諸童行競持鋤耒。(祖堂集) (이튿날 새벽에 아이들은 제각기 낫과

19) 《說文解字今釋》，湯可敬 撰，岳麓書社，1693쪽.

팽이를 들고 나왔다.)

[예70] 左手持劍, 右手捉女子.(敦煌變文校注)(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여자를 붙잡다.)

[예71] 張生手持石鼓文, 勸我識作石鼓歌.(韓愈: 石鼓歌) (장생이 석고문을 들고 와서는 석고가를 지어보라 내게 권하네.)

[예72] 前二十人金裝重甲持棍槍.(三朝) (스무 명은 앞에서 무거운 금속 장갑에 창과 곤을 들었다.)

[예64]~[예65]를 보면, 先秦 및 西漢시기에 '持'는 '들다' 의미로 사용된다. 北京大學 CCL 語料庫에 나타난 '持'의 출현빈도를 보면, 先秦 및 西漢시기 10여회, 東漢 42회로 東漢시기에 이르러 '持'는 다양한 사물을 목적어로 가지며 '들다' 의미장에서 의미역(義域)이 확대된다. 東漢시기 '持'가 갖는 목적어는 [예66]에 보이는 '나무지팡이'외에도 무기류, 불, 물고기, 황금, 바리때, 땀감, 농기구 등이 보인다. [예67]~[예68]을 보면, 魏晉南北朝시기에 '持'는 '게'와 '도끼' 등을 목적어로 갖고, 이외에도 '술잔', '악기' 등이 목적어로 보이며, 東漢시기에 비해 출현빈도가 감소한다. 唐宋시기에 오면 '持'는 [예69]~[예7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끼', '농기구', '석고문', '무기'를 목적어로 갖는데, 이외에도 '바리때', '지팡이' 등이 보인다. 北京大學 CCL 語料庫에 魏晉南北朝시기 5회, 唐宋시기 18회의 출현빈도²⁰⁾를 보여 東漢시기보다 의미역(義域)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7. 揭

1) 唐宋시기 '揭'의 의미 분석

'揭'는 唐宋시기에 '들다' 의미로 사용된 어휘이다. 《敦煌變文校注》, 《朱子語類》, 《三朝》에 용례가 보인다.

[예73] 忽有一仙人向前揭榜.(敦煌變文校注) (갑자기 한 신선이 앞을 향해 방을 들어올렸다.)

[예74] 揭簾欲入.(朱子語類) (발을 들어 들어가고자 하다.)

20) 중복구문은 1회로 봄.

[예75] 宣撫司揭榜示衆.(三朝) (선무사가 방을 들고 무리들에게 보였다.)

[예73]~[예75]의 예문을 통해, 唐宋시기에 ‘揭’는 ‘방’이나 ‘문발’ 등을 들 때 사용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시기에 ‘揭’는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데, 《敦煌變文校注》 4회, 《朱子語類》 3회, 《三朝》에 2회 보이고, 《祖堂集》, 《六祖檀經》, “唐詩三百首”, “王梵志詩”, 《近思錄》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2) ‘揭’ 의미의 역사적 변천

‘揭’는 《說文》에 ‘高舉也.’²¹⁾라 하여 ‘높이 들다’의 의미를 지닌다. 先秦문헌에는 《詩經》과 《莊子》에 그 예가 보인다.

[예76] 匏有苦葉, 濟有深涉. 深則厲, 淺則揭.(詩經·邶風·匏有苦葉) (박에는 마른 잎이 달려 있고 제수에는 깊은 나무가 있네. 깊으면 옷 입을 채 건너고 얕으면 옷섶을 들고 건너네.)

[예77] 然而巨盜至則負匱揭篋擔囊而趨.(莊子·胠篋) (그러나 큰 도둑은 오면 껌짝을 지고 상자를 들고 주머니를 메고 달아난다.)

西漢시대에 오면 ‘揭’는 다양한 사물을 목적어로 취하며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확대된다.²²⁾ 예문은 아래와 같다.

[예78] 於是乘其車, 揭其劍, 過其友.(戰國策) (이에 그 수레를 타고 그 검을 쳐들고는 친구들 옆을 지나다.)

[예79] 其北則盛夏含凍裂地, 涉冰揭河.(史記) (그 (동산의) 북쪽은 한여름에도 얼음을 머금어 땅이 갈라져, 빙판 위를 걸을 때 옷자락을 추켜들고 하수(河水)를 건넵니다.)

‘揭’는 東漢시기를 거쳐 후대로 올수록 결합하는 사물의 종류가 감소하여 의미역(義域)의 축소현상을 보인다. 東漢시기 《論衡》에 “揭華旗”(큰 깃발을 들다.)라는 예문이 보이고, 魏晉南北朝시기 《문심조류》(예: 全寫則揭篋: 전부를 표절하면 상

21) 《說文解字今釋》, 湯可敬 撰, 岳麓書社, 1714쪽.

22) 《전국책》中的 ‘들다’ 어휘 풀이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

자를 들고 간 것이다.)과 《포박자》(예 揭其不貲之寶: 그 수많은 보물을 들다.) 등에 그 예가 보인다.

唐宋시기에 ‘揭’는 《敦煌變文校注》에 4회, 《朱子語類》에 3회, 《三朝》에 2회 출현한다. ‘揭’와 결합하는 사물도 ‘문발’이나 ‘방’ 등으로 앞 시기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축소된 경향을 보인다. ‘揭’는 先秦 및 西漢시기에 ‘들다’ 의미장에서 비교적 다양한 사물을 목적어로 가지며 활동하다, 후대로 올수록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줄어들고, 출현빈도 또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8. 擡

1) 唐宋시기 ‘擡’의 의미 분석

‘擡’는 唐代에 처음 출현한 ‘들다’ 의미를 가진 어휘이다. 일반 사물을 목적어로 갖는 ‘들다’ 의미의 ‘擡’는 《敦煌變文校注》와 《三朝》에 그 용례가 보인다.

[예80] 右手抬刀.(敦煌變文校注) (오른손에 칼을 들었다.)

[예81] 遇食時, 數人擡舁十數鼎鑊致前.(三朝) (식사 때가 되자, 여러 사람이 수십 개의 솥을 들고 앞으로 왔다.)

[예80]과 [예81]을 보면 唐宋시기에 ‘擡’는 ‘칼’과 ‘솥’을 들 때 사용되었다. ‘들다’ 의미를 지니는 ‘擡’는 唐代에 처음 출현하는데, 이시기에는 용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예81]을 보면, ‘擡’는 동의어인 ‘舁’와 같이 결합하여 ‘들다’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舁’는 방언어휘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唐宋시기 ‘擡’는 ‘신체부위’를 들 때도 사용된다. (번역)

[예82] 擡足舉頭皆利益.(敦煌變文校注) (발과 머리를 드는 것이 모두 이익이다.)

[예83] 擡眼不看.(敦煌變文校注) (눈을 들어 보지 않는다.)

[예84] 擡身强强起來.(敦煌變文校注) (몸을 들어 꼳꼳하게 서다.)

[예85] 恭似低頭, 敬似擡頭.(朱子語類) (공경은 머리를 숙이듯 하고, 존경은

머리를 들 듯하다.)

신체부위를 들 때 사용되는 ‘擡’는 唐五代 처음 출현하여 宋代시기를 거쳐 점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예82]~[예85]을 보면 발이나 머리를 들 때 사용되고, 눈을 치켜뜨거나 신체를 일으킬 때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2) ‘擡’ 의미의 역사적 변천

‘들다’의 의미를 지니는 ‘擡’는 唐代에 용례가 처음 보인다.²³⁾ ‘擡’는 唐代 처음 출현하여 후대로 오면서 점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헌상에서 일반사물을 들 때의 용례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敦煌變文校注》에 2회([예]右手擡刀), 《三朝》에 단 1회([예81]) 출현할 뿐이다. ‘擡’는 ‘들다’ 의미장안에서 일반사물보다는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더 많이 갖는다. 신체부위는 머리, 발, 눈, 몸 등 다양한 목적어를 대상으로 갖는다.²⁴⁾ 다양한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갖는 ‘擡’는 ‘擧’와 대다수의 신체부위 목적어를 공유한다. 이 시기에는 신체부위를 들 때 ‘擡’와 ‘擧’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후대로 올수록 점차 ‘擡’는 ‘머리’와 ‘발’ 등을 들 때 사용되고, ‘擧’는 주로 ‘손’ 등을 들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들다’ 의미장 안에서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가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先秦에서 唐宋시기까지 중국어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

아래 본문에서는 先秦부터 唐宋시기까지 ‘들다’류 어휘가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경우와 신체부위와 결합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23) 《漢語大詞典》에 ‘들다’ 의미항으로 “爪擡山脈斷。(周繇：題東林寺虎掬泉)” 예문이 보임.

24) ‘擡’는 손을 들 때도 사용된다. 본문에서 고찰한 문헌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북경대학 語料庫에 의하면, 唐代 《金剛經鳩異》에 처음 용례가 보이고 北宋시기 《太平廣記》 등에 자주 출현하며 元代에 사용빈도가 증가한다. 清代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1. ‘들다’+일반사물

先秦시기부터 唐宋시기까지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중국어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들다’류 어휘 의미장 변화

시기 의미장 변화		先秦 및 西漢	東漢	魏晉南北朝	唐宋
		常用	舉 挈 揭 執 持 提	舉 持	提
‘들다’ 의미장	減少		提 挈 執 揭	舉 揭 執 挈 持	舉 揭 挈 執
	出現			擎	擡

〈표1〉을 통해 중국어 ‘들다’ 의미장을 살펴보면, 우선 先秦 및 西漢시기에 사용되었던 중국어 ‘들다’류 어휘는 ‘舉’, ‘挈’, ‘揭’, ‘執’, ‘持’, ‘提’ 등이다. 東漢시기에 ‘提’, ‘挈’, ‘執’, ‘揭’는 감소현상을 보이는데, 감소현상은 출현빈도가 줄거나, ‘들다’류 어휘와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魏晉南北朝시기에 이르면 ‘提’는 다시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도 다양해진다. 그에 반해 ‘舉’는 감소현상을 보이는데, ‘舉’는 일반사물을 목적어로 갖던 앞 시기와 달리, 이 시기에는 비교적 제한된 사물(예: 술, 술잔 등)과 결합하며 ‘들다’ 의미장 안에서의 역할은 주로 신체부위를 들 때 사용된다. 이시기에 ‘持’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揭’ 역시 東漢, 魏晉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를 거치면서 사용빈도가 감소하고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도 축소된다. 魏晉南北朝시기에 ‘擎’은 ‘들다’ 의미장안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출현해 활동한다. 唐宋시기에는 魏晉南北朝시기와 비교해 ‘擎’의 사용이 활발해진 점 외에, 새로운 구성원으로 ‘擡’가 출현한 점을 들 수 있다.

아래는 일반사물을 목적어로 갖는 ‘들다’류 어휘의 시대별 사용상황 및 그와 결합하는 어휘들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2〉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들다’류 어휘의 사용상황 및 결합어휘 역사적 변천 표25)

시기 '들다' 어휘		先秦 및 西漢	東漢	魏晉 南北朝	唐宋
		출현 안함	출현 안함	출현	확대
擊	사용상황	출현 안함	출현 안함	출현	확대
	결합어휘	없음	없음	세숫대야, 음식 등	그릇류, 짐, 보석류, 악기, 채찍, 창 등
擧	사용상황	多	多	감소	감소
	결합어휘	술잔, 바둑알, 화살, 촛불, 깃털 등	술, 악기, 그물, 햇불, 노 등	술, 술잔 등	지팡이, 무기류, 술 등
提 ²⁶⁾	사용상황	少	少	증가	증가
	결합어휘	북, 술잔, 칼, 옷 등	술잔, 검, 주전자	칼, 저울(추), 창, 바리때, 북, 북채 등	찰종지, 팽주리, 주머니, 무기류(검, 칼 등), 북, 물건 등
掣 ²⁷⁾	사용상황	少	감소	감소	감소
	결합어휘	그릇류(단지, 용기), 옷깃, 창, 돌, 악기, 산, 동물 등	지팡이, 짐 등	그릇류, 신발 등	술, 바구니, 악기, 지팡이 등
執	사용상황	多	감소	감소	감소
	결합어휘	악기, 무기, 생활용품, 술통, 예물, 신발, 고삐 등	예물 등	죽간, 그릇 등	무기(칼, 방패) 등
持 ²⁸⁾	사용상황	少	증가	少	증가
	결합어휘	예물, 창, 깃발, 노, 활, 양초 등	지팡이, 창, 도끼, 부절, 칼, 불, 물고기, 황금, 술(잔), 바리때, 뿔감, 농기구, 활, 보물, 붓 등	계, 술잔, 도끼, 악기 등	농기구류, 무기류, 바리때, 서적류, 지팡이 등
揭	사용상황	少	감소	감소	감소
	결합어휘	옷섬, 껌, 도끼, 햇불, 깃발, 장대 등	장대, 깃발 등	상자, 보물 등	척령, 방, 문발 등
擡	사용상황	출현 안함	출현 안함	출현 안함	출현
	결합어휘	없음	없음	없음	칼, 술 등

25) 〈표2〉는 《전국책》 中의 ‘들다’ 어휘 풀이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와 北京大學 CCL 語料庫를 참조하여 만든 것임.

26) ‘提’는 북경대학 CCL 語料庫에 先秦 및 西漢시기 13회, 東漢 4회, 魏晉南北朝 14

〈표2〉를 보면, '擎'의 '들다' 의미는 魏晉南北朝시기에 처음 보이는데, '세숫대야'와 '음식' 등을 목적으로 갖는다. 唐宋시기에 오면 그 사용빈도와 사물의 결합범주가 확대되는데 예를 들면 '그릇류', '짐', '보석류', '악기', '채찍', '장' 등이 목적으로 사용된다. '擧'는 先秦시기와 漢代 '술잔', '바둑알', '화살', '춧불', '깃털', '악기', '노' 등 다양한 사물을 목적으로 가지며 '들다' 의미장안에서 매우 활발히 사용되었던 어휘이다. 魏晉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를 거치면서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범주가 축소되고 신체부위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한다. '提'는 先秦 및 西漢시기에 '북', '술잔', '칼', '옷' 등을 목적으로 가지며 사용된다. 東漢시기에 출현빈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魏晉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에 출현빈도가 증가하며 그와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도 확대된다. '挈'를 보면, 후대로 올수록 결합어휘가 축소된다. 하지만 〈표2〉에서 각주 27)을 보면 東漢시기(5회)에 비해 魏晉南北朝시기(9회)와 唐宋시기(16회)에 출현빈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경대학 CCL 語料庫에 東漢시기 문헌보다 魏晉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의 문헌이 많이 수록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이로써 東漢시기보다 사용빈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다만, 先秦 및 西漢시기에 비해 후대에 그 사용빈도나 결합어휘가 축소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執'는 先秦 및 西漢시기에 '악기', '무기', '생활용품', '술통', '예물', '신발' 등 다양한 사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된다. 후대로 올수록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축소하며, '들다' 의미장이 아닌 '잡다' 의미장 등 타 의미장에서 활동이 두드러진다. '持'는 先秦 및 西漢시기에 '들다' 의미로 사용된다 東漢시기에 다양한 사물과 결합하며 증가추세를 보인다. 魏晉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에 오면 東漢시기에 비해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축소되고 출현빈도가 감소한다. '搨'는 先秦 및 西漢시기에 '옷셔', '괘짜', '도끼', '헛불', '깃발', '장대' 등 다양한 사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된다. 후대로 오면서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축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擡'는 先秦부터 魏晉南北朝시기까지 출현하지 않다가 唐代와 五代시기에 이

회, 唐宋 30여회 출현한다.

- 27) '擎'는 북경대학 CCL 語料庫에 先秦 및 西漢시기 30여회, 東漢 5회, 魏晉南北朝 9회, 唐宋 16회의 출현빈도를 보인다. 魏晉과 唐宋시기 몇몇 어휘들은 종종 반복하여 출현한다(예: 挈瓶).
- 28) '持'는 '들다' 의미로 북경대학 CCL 語料庫에 先秦 및 西漢시기 10여회, 東漢 42회, 魏晉南北朝 5회, 唐宋시기 18회 출현한다(중복 구문은 1회로 봄).

르러 용례가 보이는데, ‘갈’, ‘술’ 등의 어휘를 목적어로 갖는다.

2. ‘들다’ + 신체부위

先秦시기부터 唐宋시기까지 신체부위와 결합하는 중국어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신체부위와 결합하는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

어휘 \ 시기		先秦 및 西漢	東漢	魏晉 南北朝	唐宋
擎	결합유무	×	×	×	○
	신체부위	×	×	×	주먹, 머리
舉	결합유무	○	○	○	○
	신체부위	손, 머리, 발	손, 머리, 발, 몸	손, 머리, 발	손, 머리, 발, 몸, 눈
提	결합유무	×	×	×	○
	신체부위	×	×	×	손
挈	결합유무	×	×	×	×
執	결합유무	×	×	×	×
持	결합유무	×	×	×	×
揭	결합유무	×	×	×	×
擡	결합유무	×	×	×	○
	신체부위	×	×	×	발, 눈, 몸, 머리

〈표3〉을 보면, 중국어 ‘들다’류 어휘 중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갖는 어휘는 ‘擎’, ‘舉’, ‘提’, ‘擡’이다. ‘擎’은 先秦부터 魏晉南北朝시기까지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갖지 않는다. 唐宋시기에 이르러 ‘주먹’과 ‘머리’를 목적어로 갖으나 사용빈도가 매우 낮다. 이는 ‘擎’의 ‘들다’ 의미가 魏晉南北朝시대에 생겨난 것과도 연관이 있다하겠다. 唐代에 이르러 《祖堂集》과 “王梵志詩”에 용례가 보인다. 清代와 民國 初 문헌²⁹⁾

29) 北京大學 CCL 語料庫에 보면 “高擎手中, 吹口氣, 念念有詞, 喝聲大大。”(清代小說)와 “轉身一看章筱榮, 擎手槍追出來。”(《留東外史續集》)가 보인다.

에 '擎'이 손(手)을 목적어로 갖는 경우가 간혹 보이거나 용례가 매우 적다. 또 '擎'이 '머리'를 목적어로 갖는 경우도 唐代 용례가 잠시 보일 뿐이며 이후로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³⁰⁾ '擎'은 唐宋시기 일반사물을 드는 행위로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신체부위와는 자주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처음 '擎'이 '들다' 의미가 생성되어 사용될 당시 잠시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가지며, 후에는 다른 '들다' 의미의 어휘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듯하다. '擧'는 先秦부터 唐宋시기까지 신체부위를 들 때 사용된 보편적인 어휘이다. 북경대학 CCL 語料庫를 통해 보면, '擧'는 先秦부터 唐宋시기까지 주로 '손', '머리', '발'을 목적어로 갖는다. 東漢시기에는 '몸'을 세울 때 사용된 용례가 보이거나³¹⁾, 魏晉南北朝시기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唐宋시기에 이르러 용례가 많이 보이고³²⁾, 이 시기 이후로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擧身'은 唐宋시기에 주로 사용된 어휘로 보인다. 현대한어에서 '擧'는 신체부위 중 손을 드는 것(예: 擧手)에 주로 사용되고, 발이나 머리를 드는 경우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³³⁾ 이는 신체부위와 결합하는 '들다' 의미의 '擧'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의미역(義域)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들다' 의미장안에서 발과 머리를 드는 행위는 '擡'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손을 드는 행위에 있어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提'는 先秦부터 魏晉南北朝시기까지 신체부위를 들 때 사용되지 않는다. 東漢 문헌에 '提頭'가 보이거나 이는 자신의 신체부위 머리를 드는 행위가 아니라, 신체에서 분리된 타인의 머리를 들 때 사용된다.³⁴⁾ '提頭'는 明代에도 용례가 보이거나³⁵⁾ 후대에는 사라진 어휘로 보인다. '提'는 唐五代에 이르러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갖는 용례가 문헌상에 처음 보인다(〔예〕 提起手(祖堂集)). '提'는 자신의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갖는 경우 '손'을 목적어로 가지며 다른 신체부위와는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擡'는 唐代시기에 '들다' 의미가 처음 출현하는데, '발', '눈', '몸', '머리' 등 다양한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갖는다. 이외, '執' 역시 '들다' 의미를 지니며

30) [예6] 참조.

31) [예] 擧身赴清池.(孔雀東南飛)

32) 북경대학 CCL 語料庫에 따르면, '擧身'은 唐代 〈佛說觀無量壽佛經圖畫〉에 보이고, 唐宋시기 문헌에 자주 출현한다.

33) 현대한어에 '擧頭'가 사용되기는 하나 '머리를 들다'의 의미는 주로 '擡頭'를 사용한다.

34) [예] 方提頭趨湯鑊.(前漢紀) (머리를 들고 끓는 솥으로 달려가다.)

35) [예] 被張飛手起一劍砍倒, 提頭擲于孫夫人前.(三國演義)

간혹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갖는데, 이때 ‘執’는 ‘들다’의 의미가 아니며 ‘(붙)잡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IV. 나오는 말

이상 본문에서는 唐宋시기 ‘들다’류 어휘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先秦부터 唐宋시기까지 중국어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와 역사적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唐宋시기 ‘들다’ 의미장안의 어휘들은 ‘擎’, ‘擧’, ‘提’, ‘挈’, ‘執’, ‘持’, ‘搯’, ‘擡’ 등이다. 이들은 ‘들다’ 의미장안에서 각 시대별로 자신만의 의미역(義域)을 구축하며 출현빈도와 결합어휘의 증감 및 새로운 어휘의 출현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들다’ 의미장의 변화를 이끈다.

‘들다’류 어휘는 일반사물을 목적어로 갖는 경우와 자신의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갖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일반사물을 목적어로 갖는 경우를 살펴보면, 先秦 및 西漢시기에 사용된 어휘들은 ‘擧’, ‘挈’, ‘搯’, ‘執’, ‘持’, ‘提’ 등이다. 東漢시기에 ‘提’, ‘挈’, ‘執’, ‘搯’는 출현빈도가 감소한다. 魏晉南北朝시기에는 ‘擎’이 새로이 출현하고, ‘擧’는 출현빈도와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감소한다. 이 시기에 ‘提’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들다’ 의미장에서의 위치를 다져간다. 唐宋시기에는 魏晉南北朝시기에 생겨난 ‘擎’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이와 더불어 ‘提’와 ‘持’도 ‘들다’ 의미장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이 시기에 새로운 구성원 ‘擡’가 등장하여 ‘들다’ 의미장에 합류된다.

先秦부터 唐宋시기까지 중국어 ‘들다’ 의미장에서 자신의 신체부위와 결합하여 사용된 어휘를 살펴보면, 先秦과 漢代에는 손, 머리, 발과 같은 신체부위를 들 때 ‘擧’를 사용하였다. 특히 漢代에는 ‘擧身’의 단어가 출현하기도 하였으나 용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魏晉南北朝시기에도 신체부위를 들 때는 ‘擧’를 사용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 唐代에 이르러 새로운 어휘 ‘擡’의 출현으로 신체부위를 목적어로 갖는 ‘들다’ 의미장에 한차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唐宋시기 머리를 들 때는 ‘擎’, ‘擧’, ‘擡’를 사용하고, 주먹을 들 때는 ‘擎’, 손을 들 때는 ‘擧’와 ‘提’, 발을 들 때는 ‘擧’와 ‘擡’를 사용하였다. 이외, 눈을 치켜들거나 신체(몸)를 들 때도 ‘擧’와 ‘擡’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唐宋시기까지 현대한어에서 사용되는 ‘들다’ 의미의 ‘拿’와 ‘拾’ 등은 보이지 않는다. 현대중국어 ‘들다’ 의미장의 구성원들이 어느 시기, 어떤 과정을 통하여 대대적인 변동이 이루어졌는지는 차후 후속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 段玉裁[清]《說文解字注》，上海古籍出版社，1995
 蔣紹愚《古漢語詞彙綱要》，北京大學出版社，1992
 劉 向[漢]《戰國策》，上海古籍出版社，1998
 羅竹風 主編《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5
 湯可敬《說文解字今釋》，岳麓書社，1997
 劉義慶撰，餘嘉錫譯註《世說新語箋疏》，中華書局，2007
 王鳳陽《古辭辨》，吉林文史出版社，1993
 汪維輝《東漢-隨常用詞演變研究》，南京大學出版社，2000
 黃信愛《〈전국책〉中的‘들다’어휘 풀이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中國文學研究，2011. 02
 黃信愛《〈여씨춘추〉, 〈사기〉, 〈세설신어〉를 통해 본 중국어 ‘주다’ 어휘 의미연구》，중국어학회，2009. 09
 司馬遷《史記》，中華書局，1982
 靜、筠二禪德編集《祖堂集》，中州古籍出版社。
 黃征,張涌泉 校註《敦煌變文校注》，中華書局，1997
 慧 能《六祖壇經》，광덕 옮김, 불광출판사, 2008
 朱 熹《近思錄》，김학주 옮김, 명문당, 2004
 黎靖德 編《朱子語類》，허택·이요성 역주, 정계출판사。
 徐夢辛(宋)《三朝北盟會編》，上海古籍出版社。
 손 수《唐詩三百首》임동석 옮김, 동서문화사, 2010.
 羅竹風 主編，《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5
 楊伯峻《春秋左傳注》，中華書局，2009
 《韓非子集解》，中華書局，2006
 《十三經注疏》，中華書局，2003
 그 외, 北京大學 CCL 語料庫 홈페이지: <http://ccl.pku.edu.cn>

【中文提要】

本文以唐宋時期有關‘拾’義詞匯為研究對象，對唐宋時期‘拾’義的詞匯進行了研究。本文主要考察了唐宋時期‘拾’義的詞匯有哪些而它們有哪些特征并考察了它們在歷史中又什麼變化？

唐宋時期有關‘拾’義的詞匯主要有‘擎’，‘舉’，‘提’，‘挈’，‘執’，‘持’，‘揭’，‘拾’等。它們在‘拾’義的語義場中通過出現頻率增減或和‘拾’義詞匯結合的賓語范疇有時縮小，有時擴大會具有它們自己的特点及領域。

‘拾’義的詞匯可分為以一般詞匯帶賓語和以身體部位帶賓語的兩個方面。從以一般詞匯帶賓語的角度考察，首先，先秦和西漢時期有關‘拾’義詞匯有‘舉’，‘提’，‘挈’，‘執’，‘持’，‘揭’等。到東漢時期，‘提’，‘挈’，‘執’，‘揭’，它們出現頻率減少了。到魏晉南北朝時期新出現‘擎’。到了唐宋時期，‘擎’在文獻中經常出現而新出現‘拾’。從以身體部位帶賓語的角度考察，先秦及漢代用‘舉’帶手，頭和腳等賓語。到魏晉南北朝時期沒有什麼大變化。到唐宋時期在以身體部位帶賓語的‘拾’義語義場有比較大的變化。在唐宋時期，抬頭時一般用‘擎’，‘舉’，‘拾’，舉手時用‘舉’和‘提’，抬腳和舉眼時用‘拾’和‘舉’詞匯。

到唐宋時期還沒出現現代漢語中的‘拿’和‘拾’等詞匯。它們的產生時期和使用情況以後還要做研究。

【主題語】

語義場，賓語，唐宋時期，拾，身體部位